

고용노동부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장려금사업/고용안정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 '21년 평가등급 : 개선필요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산재노동자 요양 중 업무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고 산재노동자 요양 종결 후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 일부를 지원하여 원직복귀 촉진
- (사업내용) 대체인력의 인건비 최대 50% 지원(최대 6개월, 월 60만원 한도)

□ 예산 및 재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			(%)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3,053	-	2,786 (91.3%)	3,168	115	3.8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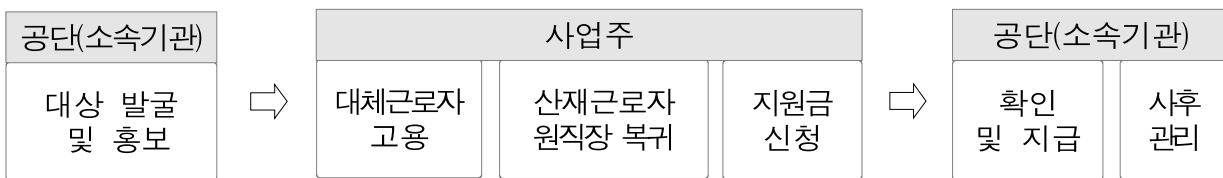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및 시행령 제67조

□ 주요 지원대상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 (산재노동자) 장애등급 판정자 또는 요양기간 2개월 이상인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
- (대체근로자) 산재노동자의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요양 중 신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 * 대체인력 채용 후 기존 근로자 해고·권고사직 시 지원대상 제외

□ 전달체계

* (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기존) 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기간 중 근로자 감원 시 무조건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제외 → (변경) 대체인력 채용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하더라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 * 근로복지공단 직무규정「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제37조의15 제2항3호 개정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 (참여 근로자 수) '20년 기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을 최초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1,133명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근로자 중 0.04%, 고용안정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중 0.1%를 차지함.

- (성별) 여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이 27.5%로 남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72.5%)보다 낮게 나타남.
- (연령별) 중년(45.9%)과 장년(32.1%)의 지원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청년(14.7%)과 고령(7.0%)의 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표 1〉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참여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장려금 전체	2,583,913 (100.0)	1,176,447 (45.5)	1,407,404 (54.5)	1,253,831 (48.5)	957,824 (37.1)	296,284 (11.5)	75,650 (2.9)
고용안정형 전체	1,544,811 (100.0)	642,233 (41.6)	902,516 (58.4)	797,478 (51.6)	504,824 (32.7)	191,128 (12.4)	51,137 (3.3)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1,133 (100.0)	821 (72.5)	312 (27.5)	166 (14.7)	520 (45.9)	364 (32.1)	79 (7.0)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 사업장 현황

- (참여 사업장 수) '20년 기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을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1,058개소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사업장 중 0.3%를 차지하며, 고용안정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중 0.6%를 차지함.
- (규모별) 지원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99.4%)이 대다수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참여도(0.1%)는 매우 낮은 편임.
 - * '공동주택 관리 사업주'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고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지원함
- (산업별) 서비스업(50.5%)의 참여 비중이 높고, 제조업(46.9%)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표 2〉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참여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장려금 전체	336,601 (100.0)	333,357 (99.0)	2,258 (0.7)	64,040 (19.0)	8,350 (2.5)	262,195 (77.9)
고용안정형 전체	188,202 (100.0)	186,963 (99.3)	546 (0.3)	27,975 (14.9)	3,117 (1.7)	155,680 (82.7)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1,058 (100.0)	1,052 (99.4)	1 (0.1)	496 (46.9)	19 (1.8)	534 (50.5)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 정량지표별 결과

〈표 3〉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정량지표 결과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 ¹⁾	기업생존률 ²⁾
고용장려금 전체	81.2	25.3	84.8
고용안정형 전체	86.5	/	84.6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8.4	/	88.3

주1: 고용증감율은 고용창출형과 고용유지형에서만 산출하며, 고용유지형은 종료 후 고용증감율로 산출

2: 기업생존률은 고용유지형과 고용안정형에서만 산출

3: 모성보호형은 고용유지율만 산출

□ 만족도 조사 결과

○ 항목별 만족도

〈표 4〉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고용장려금 전체	4.20	4.19	4.19	4.36	4.21	4.17	4.05	4.16	4.28	4.16
고용안정 전체	4.23	4.21	4.20	4.34	4.20	4.19	4.12	4.14	4.29	4.17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4.28	4.26	4.27	4.34	4.32	4.26	4.10	4.32	4.36	4.22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2) 전반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절대적 만족도: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그림 1]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참여기관)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주: 1) 만족항목

- 전체: 지원대상(28.8) > 지도수준(16.9) > 지도/관리(10.3) > 지원기간(9.8) > 신청절차(9.1) ; 없음(25.1)
- 안정: 지원대상(23.0) > 지원수준(14.6) > 지원기간(11.1) > 지도/관리(10.7) > 신청절차(9.8) ; 없음(30.8)

2) 개선항목

- 전체: 신청절차(8.6) > 지원기간(5.9) > 지원수준(4.8) > 지원대상(3.7) > 지도/관리(3.1) ; 없음(74.0)
- 안정: 신청절차(8.7) > 지원대상(4.5) > 지원기간(3.4) > 지원수준(3.3) > 지도/관리(2.3) ; 없음(77.7)

3) 추천 의향

- 전체: 4.29점, 추천(81.9=31.4+50.5) > 보통(15.4) > 비추천(2.7=2.1+0.6)
- 안정: 4.28점, 추천(80.7=30.1+50.6) > 보통(16.3) > 비추천(3.0=2.3+0.7)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 (사업의 중요성) 산재노동자의 요양 중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신규 대체노동자 고용을 지원하고,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를 지원

- 산재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산재예방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산재근로자 지원제도의 중요성도 지속 확대

* 산재노동자, 명: ('18년) 1,219, ('19년) 1,267, ('20년) 1,309

- (일자리사업 성과)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와 대체인력 지원에 따른 신규 일자리창출 및 계속고용에 기여

-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회복과 일자리 복귀에 실효적 성과 발효

* 원직복귀율, %: ('18년) 42.5, ('19년) 43.4, ('20년) 44.4

- (신규 일자리창출) 산재근로자의 업무 공백기간 신규 대체근로자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 대체근로자 지원, 명: ('18년) 1,341, ('19년) 1,426, ('20년) 1,472

- 대체노동자 계속고용에 양호한 성과 유지

* 대체노동자 180일 고용유지율: ('17년) 50.4% ('18년) 52.1% ('19년) 59.7%

○ (운영의 적절성) 전년도 운영실적을 토대로 예산배정 및 사업운영 계획 수립, 내실화 노력 병행

-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 중복지급 예방시스템 운영 등 적정 수준의 사업설계가 이루어져 있음

* 고용유지 요건: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유지 (대체노동자) 30일 이상 고용유지

- 유사 사업주 지원금 중복지급 방지 위해 전산망 연계, 예방시스템 마련
- 업무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위한 직무교육 및 자료 배포
- 성과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 (제도개선 노력) 사업실효 확보에 따른 제도확대 요구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개선

- (지원대상 확대) 20인 미만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규정 정비) 경영상 해고에 대해 타 법령 지원금과 동일기준 적용

*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자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 대체노동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노동자가 고용조정된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

○ (특성화 지표)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을 특성화지표로 활용. 사업목적인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지원과 계속고용 유지 평가에 부합하는 지표로 적절

* 산재노동자 고용유지율 = $\frac{365\text{일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한 산재노동자}}{\text{사업 참여가 종료된 산재노동자}} \times 100$

4 개선권고

□ 평가등급: 개선필요

- 사업의 중요성 및 운영 적절성, 제도개선 노력 등에 있어서는 양호한 수준이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 산재근로자라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상 고용유지율 성과가 비교적 낮음
-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노력 외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업무복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규모·지원수준 관리 필요
- 아울러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 규모를 고려한 사업규모 편성이 바람직
 -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산재근로자 대상 지원사업을 OECD LMP 기준에 준하여 별도 유형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현 예산배정 방식은 전년도 운영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것으로, 현장 모니터링, 추가 정책수요 파악을 통해 보다 상세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